

교회소식

◆ 광고

-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후 예배는 신일비전현신예배로 드립니다.
-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연습 2시, 소망관)
- 2014년 대전신일교회 바자회가 개최됩니다- 풍성한 바자회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의 생필품, 의류, 가전제품 등의 헌물을 부탁드립니다
①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② 장소 : 대전신일교회
- 금요선교기도회-9월 12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①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8~10시 ② 장소 : 고신총회선교센터예배당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박성용, 이경자, 최숙자
- 소천 : 김진온(김남주)집사님의 장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 이사 : 최미애 성도 -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아파트 106동 303호

※교회 기도제목

-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1남전도회	여 7,8목장	쉽니다	각 목장별로	수요일 오전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9월 행사

- 7일 : 신일비전현신예배
- 14일 : 각 기관 월례회, 교단창립기념주일
- 21일 : 제5남, 6여전도회 현신예배
- 22~26일 : 총회주간
- 28일 : 정기당회

◆ 9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9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익, 이진석, 곽복님, 이정자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 소	전 화	소속기관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 11시 설교 안 주 모 목사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76장
새290장(구412장)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기 도.....1부/우성한 장로
2부/박근용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히브리서 11:13~16(신 P365)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고향을 찾는 사람

기 도..... 설교자

찬 송... 새493장(구545장) ..다같이

헌 금.....다같이

감사와 축복.....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안재경 장로
2부 / 남동균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신일비전현신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사무엘 목사
설교 안 주 모 목사

예배선언.....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이인호 집사

성경말씀.....인도자

예배소서 5:26~27(신 P315)

찬 양.....할렐루야 찬양대

말씀선포.....설교자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

찬 양... 새208장(구246장) ...다같이

헌 금.....다같이

광고/축도.....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이진석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30 인도 최사무엘 목사
설교

목 도.....다같이

찬 송... 새218장(구369장) ...다같이

기 도.....이경미 집사

성경말씀.....인도자

마태복음 6:9~15(신 P8)

말씀선포.....설교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2

목장찬양.....여 7, 8 목장

축 도.....인도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여 9, 10 목장

✚ 다음주 기도 / 윤라미 집사

Since. 1978

No 36. 2014. 9. 7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교회를 섬기는 분◆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육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등부오후예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제, 프랑스/박신희,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터넷방송, 필리핀 추수신학교/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2.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놀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령교회/김해
- 3.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성운 김예정
- 4.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생드롭인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강일창(고속자), 강현선(임희자), 경진형(이정자), 곽은태(윤순녀), 김경래(전선녀), 김금분, 김영권(정영주), 김숙현, 남동균(윤현덕), 박권웅(곽복남), 박성웅(이혜운), 박세원, 박영태, 박유연, 박혜진, 신동명(강경숙), 신정혜, 엄기준(성영옥), 오세국(하문숙), 우호선(김순자), 원용국(김복금), 이상균(김상희), 이선환, 이성순, 이수영(권월성), 이영일(홍은미), 이혜숙, 정승환(정옥자), 정이덕(한상운), 무명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곽은태(윤순녀), 김금분, 김영권(정영주), 김재홍(한영자), 김재균(한영실), 김종남, 김진온(김남주),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성운(이혜운), 박순국(조수정), 박영혜, 박은정, 박진우(김혜정), 박혜진, 성형건(윤송희), 소재익(김미화), 신정혜, 안재경(장은숙),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엄기준(성영옥), 오승엽(김영희), 오정석(정주희), 윤선옥(김신혜), 이상균(김상희), 이성순(윤지은/윤상순), 이수영(권월성), 이은화, 정재안, 최영준(한은정), 한문수(곽정자)

✦ 선교헌금

강춘자, 남동균(윤현덕), 박성웅(이혜운), 박영혜, 박혜진, 엄기준(성영옥), 원용국(김복금), 이상균(김상희), 이수영(권월성), 정이덕(한상운), 최사무열(서남지)

✦ 일천번제헌금

강혜성, 남동균(윤현덕), 남동민, 박유연, 안스디자인, 안영원(영인/혜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라희), 장은숙(소연/진형/진성)

✦ 비전헌금

박영혜, 이상균(김상희), 정인택(이정숙)

✦ 목적헌금

김종남, 무명

목장현황

초원	목 장	모인국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국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여3초원	5 김채옥						교 회
	2 강일창				교 회		6 고속자						교 회
남2초원	3 박근웅				교 회	여4초원	7 곽복남						교 회
	4 김명권				교 회		8 성영옥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교 회	여5초원	9 구남랑						교 회
	6 안재경				교 회		10 정혜민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여6초원	11 함현숙						교 회
	8 박순국				교 회		12 김복금						교 회
남5초원	9 조성철				교 회	여7초원	13 정옥자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여2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여8초원	15 신윤경						교 회
	2 김명숙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여9초원	17 한은정						교 회
	4 정채순				교 회		18 서남지						교 회

금주의 말씀

고향을 찾는 사람

히브리서11:13~16

사람은 누구에게나 세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째, 태어난 고향입니다. 둘째, 제 2의 고향입니다. 자신의 생애에 가장 오래 산 곳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셋째, 영원한 고향입니다. 이곳은 영적인 고향으로서 영원히 돌아갈 곳입니다. 이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이곳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아왔으며, 지금도 이곳을 찾아가는 노정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는 생 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1. 외국인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중언하였나” 어려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뒤하고 중언하였다고 한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고 중언하였습니 다. 이렇게 중언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아담이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담의 인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비로가 아담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아담이 비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담이 자신의 인생과 조상들의 인생을 뒤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그네길” 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베드로 역시 아담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동안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란 낯선 남자를 예스겔에게 이르는 말로써 사용하지만 여기서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 낯선 고장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을 이르는 말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외롭습니 다. 불안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기 힘듭니다. 정착할 수 없습니다. 언제가는 돌아갈 사람입니다. 나그네에게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떠돌이나그네입니다. 방황하는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돌아갈 곳이 분명치 않습니다. 둘째, 여행자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 여행을 한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나그네들입니다. 셋째, 일하는 나그네입니다. 출장을 왔거나 혹은 사업을 위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나그네이지만 이 세상에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일 하는 나그네입니다.

2. 돌아갈 궁극적인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같이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더 나은 본향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보다 더 낫다는 말입니까?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 곳이 어디에 있다고 한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곳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그들’ 은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언급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 장 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아담, 사라 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육신의 고향이 있었지만, 그들은 육적인 고향을 사모하기보다 영적인 고향인 하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적 네비게이션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비게이션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낯선 곳을 순례하는 여행자에게 네비게이션처럼 길요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네비게이션의 정확성 여부입니다. 종종 우리는 네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 잘못 입력된 네비게이션으로 더 방황하고 더 시간을 요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영원의 길을 순례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는 오류 없는 네비게이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적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른다면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는 순례자로 살 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8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때문이었다고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비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 며” 알지 못하는 길을 어떻게 갔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무엇을 따라 갔다고요? 꿈이나 환상을 따라 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여론을 따라 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갈릴갈에서 보여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 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 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 네비게이션이 바로 말씀 입니다.

4. 금의환향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고 했습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귀환입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아 가긴 하는데 아무런 선물도 준비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지 못하고, 부끄럽게, 혹은 죄송하게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거나, 혹은 하던 일이 잘 안 되어 빈 손 들고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은 빈 손 들고 찾아와도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아니 더 애정을 가지고 대해 줍니다. 하지만 자신은 힘듭니다. 반면에 금의환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의환향이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말로서 출세하여 고향을 방문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고향 충주를 찾았을 때 도시 전체가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거나 판, 검사가 되어 고향을 찾으면 마을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 부모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뿌듯하며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고향 하늘 나라에 돌아 갈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물질, 명예, 직함, 권세나 권력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속적 출세로 금의환향한다고 주님이 그를 맞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죽도 록 충성한 자를 주님은 맞아 주십니다. 영적 금의환향을 해야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